



안전의 생활화가 기업의 최고의 경쟁력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취재 · 글 | 최중덕 기자(safeeng@safety.or.kr)



구 태 원 팀장

생활화된 안전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소라 하면 통상적으로 근무여건이 쾌적하고 위험요소도 없는 안전한 직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사고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 안전지대란 없다는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최근 몇 년동안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기술지도를 받으며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안전은 하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개개인 모두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비하는 안전 습관을 갖도록 고민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연구소 전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지원 받아 설립된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던 일, 1994년 정부 시책으로 염색전문연구소가 대구에 설립되었다. 바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외적으로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 차별화를 위한 첨단 염색 가공 기술의 개발은 물론 염색업체 공동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염색가공산업을 환경친화적·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은 나와 가족의 생명이며,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본 밑거름”으로 여기고 있다.

기본적인 위험요인부터 관리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는 시험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Pilot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어 타 연구기관보다 더욱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공통적으로 실험실 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이 독극물들과 인화성 물질이어서 호흡기 장애, 화상 등의 위험성이 있다.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샘플생산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서는 제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건조 등 열발생 설비에서의 화상, 망글 및 로올러에서의 협착사고 위험이 대표적인데 통상적으로 재래형 재해 위험인데 사전 안전성평가 등으로 기본적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보호구 착용은 물론 연구실 단위별 안전관리와 팀장 중심의 Pilot 설비라인의 안전관리가 좋은 예다.

전문기관과 공조체제 유지

샘플생산공정은 제조업과 동일한 환경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연구분야와 달리 이곳에서의 안전관리는 제조업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과 위험예지훈련 등은 물론 전문적인 사항은 외부 안전기술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와 공조체제 속에 집중관리 된다.

이 때 도출된 사항들은 100% 개선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자가 따른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개선하는 우직함도 한국염색기술연구소가 보여주는 안전에 대한 의지다. 최근에는 중량물 취급이 잦은 샘플생산공정에 중량물 취급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에도 신경쓰고 있다.

안전 메너리즘에서 탈피

안전은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켜진다. 오랫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둔화되면서 메너리즘에 빠지는데, 바로 이때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산업현장에 안전 메너리즘은 독이든 사과와도 같아 경계를 한다. 이곳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서도 안전메너리즘을 가장 경계한다.

형식적이지만 이벤트성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안전관리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안전활동에 참여시키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는데, 한국염색기술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이용되는 안전기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트장, 팀장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솔선수범을 유도한 것. 1년에 1번 전직원이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고, 여기서 안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공유하며 애사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단 한건의 사고가 주는 교훈

한국염색기술연구소가 설립된 해는 1994년, 이 때부터 무재해라면 안전을 어느 정도 중요시 여겼는지 짐작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해가 발생했다. 다행이 가벼운 사고였으나 이 사고로 인해 한국염색공업연구소는 안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시 여기며 같은 경험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단 한순간의 사고가 그동안의 무재해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안전한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명성을 앗아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옛 명성을 찾기 위해 교훈을 삼아 직원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국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